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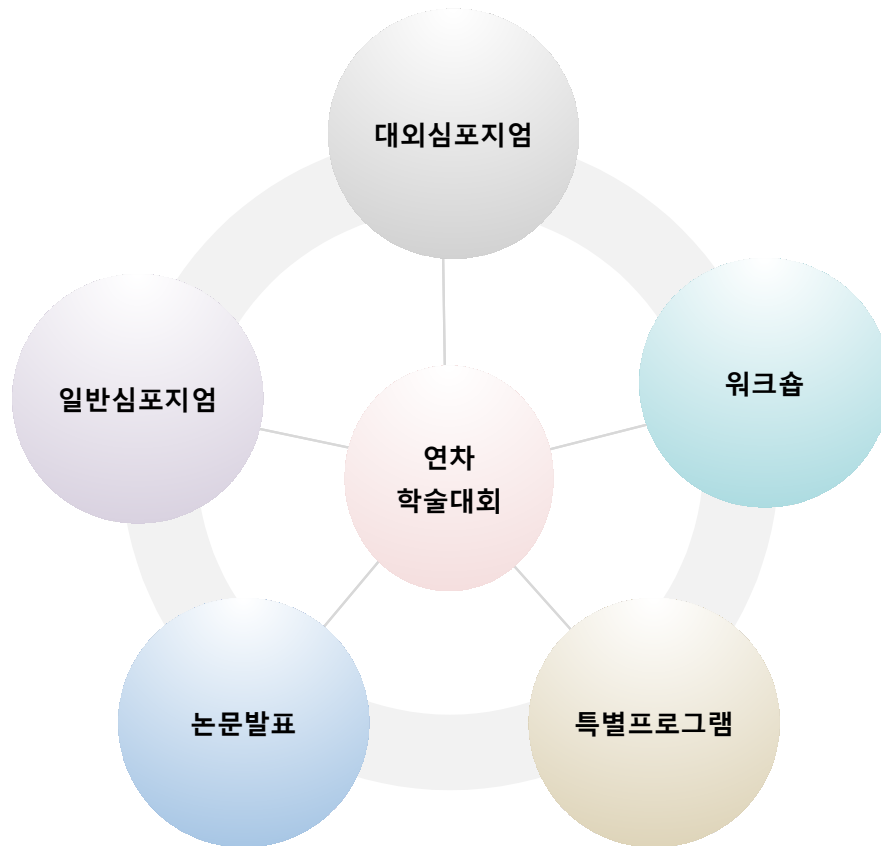
- 일시 2015년 8월 20일 (목) ~ 22일 (토)
- 장소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 센터

-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Korean risk perception:
A psychological approach on safety insensitivity

- 1일차** 8월 20일
대외심포지엄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 2일차** 8월 21일
소심포지엄, 분과융합심포지엄, 워크숍, 포스터 발표
- 3일차** 8월 22일
소심포지엄, 분과융합심포지엄, 특별프로그램, 워크숍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안내



대외심포지엄	· 대외심포지엄 (주제: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일반심포지엄	· 융합심포지엄 · 분과심포지엄 · 일반 소심포지엄
워크숍	· 특별워크숍 (주제: 심리적 외상의 감각정보처리적 개입) · 일반워크숍
논문발표	· 구두발표 · 포스터발표
특별프로그램	· 학부생 포스터발표 · 고교생 심리학교실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대외심포지엄

-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융합심포지엄

- 국가연구기관에서 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
- 건강한 사회와 성적자기결정권
- 한국형 PTSD 치료 모형 연구: 심리학·뇌융합연구와 정책연계
- 재난심리위원회: 대리외상, 소리 없는 충격으로부터의 치유와 성장
- 국내외 위기대응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실제
-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심리사 자격증 개발과 운영 계획
- 연구윤리 및 출판 윤리

분과심포지엄

- 감정공포치료: 단기억동정신치료의 실제
- 도덕적 결정 과정에서의 정서와 동기 역할
- 아동 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
- fMRI기법을 활용한 심리학 연구의 새동향
-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내적보호 요인
- 성인기 질병과 건강심리적 개입
- 행동경제학의 오늘과 미래
- 미래의 소비: 경제행위에서 사회적 행위로
- 한국사회에서 중독평가의 이슈
- 질적연구의 마당

특별워크숍

- 심리적 외상의 감각정보처리적 개입

워크숍

- 레시피(Cole et al., 2008)로 배우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
- 질적 자료 수집법: 관찰과 인터뷰
- 심리학기반 코칭

특별프로그램

- 영어 논문 작성에서 영문학술논문 출간까지
- 고교생 심리학 교실

※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스케줄표는 추후 공지됩니다.
프로그램 사정상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20일(목)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대외심포지엄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시간	주제	발표자	
09:00~09:30	개회사: 한국심리학회장	이규미	한국심리학회장 아주대교육대학원
09:30~10:00	[기조강연] 위험사회, 한국인의 안전불감증	차재호	서울대학교
제 1부 위험 지각에 대한 심리적 기제		사회자: 김재휘(중앙대학교)	
10:00 ~ 10:30	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 위험지각과 행동에서의 인간오류에 대한 이해와 해결의 모색	이재식	부산대학교
10:30 ~ 11:00	위험상황에서의 본능적 행동 패턴	최준식	고려대학교
11:00 ~ 11:30	지연된 위험의 판단에 대한 이해	김병규	USC
11:30 ~ 12:00	한국인의 문화적/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본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귀인	김영훈	연세대학교
12:00 ~ 13:30	점심식사		
제 2부 위험 상황에서의 인간행동		사회자: 주영아(상담대학원대학교)	
13:30~14:00	Why people buy at risk? : 위기상황과 소비자행동	부경희	광운대학교
14:00 ~ 14:30	위험지각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	나은영	서강대학교
14:30 ~ 15:00	재난피해 경험자들의 위험지각 특성	윤지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5:00 ~ 15:30	Japanese risk perception after 2011 Tohoku earthquake	Kazuya Nakayachi	Doshisha Univ.
15:30~15:50	Coffee Break		
제 3부 종합토론			
15:50 ~ 17:40	토론		

※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조강연: 위험사회, 한국인의 안전불감증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인의 문제 자체 보다는 심리학에서 안전이란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며, 소위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사건, 사고, 재난 등의 문제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 위험지각과 행동에서의 인간오류에 대한 이해와 해결의 모색

본 발표에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의 하나로 여겨지는 인간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정보처리 모형과 상황인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험지각의 오류를 범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둘째, 시간압력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집단 속에서의 동조와 권력거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지각의 오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오류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요구되는 노력들을 심리학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개할 것이다

위험상황에서의 본능적 행동 패턴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험상황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한 중 특이적인 반응 패턴을 진화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몇 가지 특정 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되며, 또한 변화가 어렵고 다른 대안 행동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반응 패턴에 대한 실험실 및 현장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표지판 등의 설계와 개선에 응용하고자 한다.

지연된 위험의 판단에 대한 이해

많은 확률적인 사건들은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온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문헌에는 사람들이 확률적 결과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결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논하고자한다.

한국인의 문화적/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본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귀인

동양 문화에서 강조되는 위계질서와 체면 중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가 안전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와 행동실험 결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도덕성/시민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후 책임을 어떻게 누구에게 귀인하는가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제시함으로서 (개인 vs. 구조/환경 or 개인 vs. 그룹의 주장) 안전사고 후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Why people buy at risk? : 위기상황에서의 소비자행동

개인정보 유출이나 메르스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일반 소비행동과 전혀 다른 심리적 과정 및 양상을 가진다. 우선 위기 시의 소비자행동을 특정문화나 집단 또는 소비 대상 별로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기나 충동구매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자행동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만들 좋은 캠페인전략에 필요한 요인들을 논의할 것이다.

위험지각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

지금까지 언론학과 방송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위험지각 관련 논문들과, KBS, NHK, CNN에서 보도된 일본 대지진 사건의 메시지와 영상의 차이 등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국가들(한국, 일본, 미국) 간의 재난보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사례로서, 구미 유독가스 유출사고 보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보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와 방송 뉴스의 세월호 사건 재난보도에서 의제 설정의 순서가 트위터, JTBC, KBS 순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통해서, 개인의 미디어 이용에서 위험지각과 관련된 추정 확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보도가 바람직한지,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재난피해 경험자들의 위험지각 특성

국가는 재난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재난 이전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재해구호법」제3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지원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4항). 그러나 일반인, 재난관리관계자, 그리고 재난피해자들을 사전조사 해본 결과, 각 집단에서 받아들이는 위험지각, 재난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재난관리관계자 및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통해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피해자 중심의 구호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Japanese risk perception after the 2011 Tohoku earthquake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he resulting crisis a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heavily damaged Japan.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the Japanese people are more anxious about earthquakes and accidents at nuclear plants than ever. But, how about the anxiety about other hazards confront them as well? In my talk, the results from two nationwide survey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arthquake will be presented to see the change in societal levels of anxiety toward a wide variety of hazards.

2015년 8월 21(금)-22일(토)

프로그램 상세 안내 : 특별워크숍
심리적 외상의 감각정보처리적 개입

- 진행일시: 2015년 8월 21일(금) 13:00-17:00
2015년 8월 22일(토) 09:30-17:00 (총 10시간)

최근 각종 사고, 재난, 폭력, 범죄 등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이러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하는 신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절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워크숍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뇌에 기반한 심리적 외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상담과 임상전문가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들의 감각정보가 처리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제시키고 조절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개입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내용		발표자	소속
8.21(금)	13:00~14:00	이론강의	뇌에 기반한 심리적 외상의 이해	김문수	전남대학교 前한국실험심리학회장
	14:10~17:00	워크숍 1	심리적 외상에 대한 마음챙김 적용	김정모	영남대학교 前한국임상심리학회장
8.22(토)	09:30~12:30	워크숍 2	Imagery-based techniques를 통한 외상 다루기	김대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3:30~16:30	워크숍 3	EMDR에 기반한 외상다루기	김준기	서울 EMDR 트라우마센터, 마음과마음 클리닉
	16:30~17:00	마무리 및 종합			

※ 별도로 참가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등록 안내 참조)

2015년 8월 21일(금)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국내외 위기대응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실제

- 진행일시: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공동주관자: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 토 론 자: 김동민 (중앙대학교)
- 토 론 자: 지승희 (고려사이버대학교)
- 토 론 자: 유영권 (연세대학교)
- 사 회 자: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인간의 삶은 위기와 언제나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와 정신적인 위기 그리고 환경적인 위기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인간의 삶에 위협적이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개관하고 청소년, 대학생, 노인의 발달단계별로 동시에 핵심적인 위기 문제유형별로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학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살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국내외 학교기반 위기대응 체제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의 상실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삶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위기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내용을 프로그램 실제와 지지체제로 묶어봄으로써 단일 문제의 위기대처를 넘어 성장과 통합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국내외 재난대응 프로세스와 개입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서영석	연세대학교
3	국내외 대학교의 자살 위기 대응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4	상실감을 호소하는 노인의 삶의 통합을 위한 자기수용 프로그램	주영아,이광경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건강한 사회와 성적자기결정권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3:20-17:30
- 책임주관자: 이수정 (한국여성심리학회장, 한국여성학회 협의회, 경기대학교)
- 공동주관자: 공미혜 (한국여성학회장, 신라대학교)
- 공동주관자: 이은진 (한국여성심리학회 학술위원장, 경기대학교)
- 공동주관자: 김범준 (경기대학교)
- 토 론 자: 송인한 (연세대학교)
- 토 론 자: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 토 론 자: 장미경 (방송통신대학교)
- 사 회 자: 이은진 (한국여성심리학회 학술위원장, 경기대학교)

성과 관련된 여성학과 심리학 연구의 역사는 다른 어떤 주제와 비교해 볼 때 그 깊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성에 대한 관심이나 시각은 매우 다양화되었고 연구의 주제로서의 성은 사회의 변화 속에 함께 발전해 왔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름하는데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여성학회 협의회와 사회 및 성격, 여성심리분과의 융합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성적 자기 주장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경인 ¹ , 최수미 ¹ , 천성문 ²	부산대학교 ¹ 경성대학교 ²
2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자기결정권	정주은	여성주의상담연구회
3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률적 변화	안귀옥	변호사
4	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노일석	대전보호관찰소
5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률적 접근	오정진	부산대학교
#	특별 세션: 여성심리학 책 발간에 즈음하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심리사” 자격증 개발과 운영 계획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이종한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 공동주관자: 서경현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 삼육대학교)
- 공동주관자: 최기홍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 토 론 자: 고재홍 (경남대학교)
- 토 론 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 사 회 자: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서비스법위원회에서는 가칭 “심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분과학회 자격증관리위원장과 연석회의와 심리학과 학과장과 분과학회 자격증관리위원장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의 임원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서 규정 제정을 정비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의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심리학 전공자를 위한 공통 자격증입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 모두에게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심리학 전공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자들이 자신이 한 공부를 사회로부터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직업창출과 같은 사회 진출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학회의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 있는 가칭 “심리사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심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심리학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해 볼 때 각 대학의 심리학과와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의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심리사” 자격증 개발과 운영 계획	서경현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 삼육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국가연구기관에서 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4:30-17:30
- 책임주관자: 정우현 (충북대학교)
- 공동주관자: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동주관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자: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동주관자: 오주석 (교통과학연구원)
- 토 론 자: 이민규 (경상대학교)
- 토 론 자: 김문수 (전남대학교)
- 사 회 자: 정우현 (충북대학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한 변화를 겪을수록 국가정책에서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중요성은 커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사람보다 행정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비해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충분히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교통과학연구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심리학자들로부터 심리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심리학자들의 기여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합된 심리학 관련 국가 연구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성평등정책연구와 심리학 : 심리학자의 역할과 과제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심리학자의 역할과 발전가능성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심리학자의 역할과 발전가능성	오주석	교통과학연구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연구윤리 및 출판 윤리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정경미 (연세대학교)
- 사 회 자: 정경미 (연세대학교)

최근 국내 연구윤리규정의 강화와 함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나 출판 윤리는 지도교수에게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태도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제는 연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하는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처럼 연구결과물이 매우 중요시 되는 환경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구부정행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학제에서 출판윤리확립에 기여를 하신 연구자들을 모시고, 모든 학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출판 윤리, 그리고 관련 이슈를 살펴본 후, 좋은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진다. 본 심포지엄은 초보 연구자에서 중견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정보 전달 이외에, 출판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참가자들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논문 출간 이후의 후속 조치	조은희	조선대학교
2	연구자가 알아야 할 출판윤리 : 중복게재를 중심으로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3	좋은 연구를 위한 제언	임정묵	서울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ICT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보매개자의 역할과 규제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김재휘 (중앙대학교)
- 공동주관자: 정민하 (네이버)
- 공동주관자: 김용환 (네이버)
- 토 론 자: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토 론 자: 양병화 (강원대학교)
- 토 론 자: 문장호 (숙명여자대학교)
- 토 론 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 회 자: 김재휘 (중앙대학교), 김용환 (네이버)

현대인의 삶은 이제 ICT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으며, ICT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이용자의 삶 속으로 깊게 파고 들고 있다. ICT 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인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ICT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 주체(정보매개자) 등, 관련된 주체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ICT 서비스 이용 규제와 책임에 대한 국내 상황을 보면, 중심 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의 측면에서는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인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부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과도한 모니터링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닫게 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CT 서비스 이용 하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지나치게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기본방향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기반해 개인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전동의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ICT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를 하면서도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매개자에 대한 적합한 규제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학 및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 학제간 논의의 자리를 가져보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기계주의'를 넘어서: 기술과 이용자의 공진화	김지연	고려대학교
2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 간의 관계 고찰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정보매개자의 모니터링 의무화가 이용자의 자발적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경신	고려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도덕적 결정 과정에서의 정서와 동기 역할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김영훈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연세대학교)
- 공동주관자: 김범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장, 경기대학교)
- 공동주관자: 김나민 (경기대학교)
- 토 론 자: 최해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사 회 자: 김영훈 (연세대학교)

현대 한국 사회에 빈발하는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도덕성의 상실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필요에 부응하여, 본 분과심포지엄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결정 과정에서의 정서와 동기 역할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본 심포지엄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연구자간의 활발한 교류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접근법을 소개하고 토론하려고 한다. 경영학 관점에서의 고객 불량행동에 관한 유형화 및 불량행동 고객의 프로파일링, 범죄심리학 관점에서의 비도덕적 행동과 정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분배상황 관찰, 뇌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진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고객 불량행동의 유형화 및 불량행동 고객의 프로파일링	김나민	경기대학교
2	비도덕적 행동과 정서	한지혜, 김범준	경기대학교
3	분배 상황에서의 한국 아동의 사회 비교 발달	김은영	연세대학교
4	타인의 시선에 의한 윤리적 소비 행동 변화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	정대현	고려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행동경제학 연구 현황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안서원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종합토론자: 안희경 (한양대학교), 석관호 (고려대학교), 김재휘 (중앙대학교)
이병관 (광운대학교), 임혜빈 (광운대학교),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사회자: 안서원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를 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 있는지 또는 서구에서 보고된 현상과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있는지를 공유하여 향후 행동경제학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물리적 힘이 위험추구에 미치는 영향	안희경	한양대학교
2	심적 회계와 소비자의 서비스 요금 체계에 대한 선호: 정액제 요금 versus 종량제 요금	윤세정, 석관호	고려대학교
3	유인효과의 이론 및 실용적 타당성 검토	김재휘	중앙대학교
4	극대화 성향과 속성의 정렬가능성이 처리 과정의 만족과 제품 선호에 미치는 효과	이병관, 임혜빈	광운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한국사회에서 중독평가의 이슈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장문선 (한국중독심리학회 학술이사, 경북대학교)
- 공동주관자: 권선중 (대전침례신학대학교)
- 공동주관자: 배대석 (영남대학교 병원)
- 토 론 자: 신성만 (한동대학교)
- 사 회 자: 장문선 (경북대학교)

한국사회에서 중독이라는 문제는 비단 임상장면에서 진단되는 병리적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물질중독에 비해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쇼핑, 도박중독 등 행위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러한 측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독에 대한 평가방식은 전통적인 정신병리 평가의 틀에 한정되어 왔으며, 신경심리학적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평가해 오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중독문제 평가의 이슈'라는 대 주제 하에 중독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측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고, 그간 활용 및 해석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신경심리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 심리평가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형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독문제 평가를 위한 틀과 그 틀에 기초한 도구선정과 예방 및 개입방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물질중독과 행위중독 환자들의 평가에 있어 신경심리평가의 활용방안과 결과해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중독 문제의 이해를 보다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한국사회 중독문제 평가의 과제 : 도구에서 모형으로	권선중	침례신학대학교
2	중독의 신경심리학적 평가	배대석	영남대학교 병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감정공포치료: 단기역동정신치료의 실제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3:20-17:30
- 책임주관자: 하 정 (전주대학교)
- 공동주관자: 이문희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 공동주관자: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토 론 자: 김명식 (전주대학교)
- 사 회 자: 김명식 (전주대학교)

본 심포지엄은 단기역동정신치료(STDP)의 한 학파인 감정공포치료를 대해 그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감정공포치료는 많은 정신병리가 감정공포-감정에 대한 공포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감정공포라는 개념은 정신역동적 갈등 개념을 학습이론과 행동치료의 용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잘 확립된 공포증 치료라는 개념과 기법을 정신역동적 주제와 관련지음으로써 단기역동정신치료가 가능해진다. 감정공포치료는 강력하고, 시간 효율적이며, 초점이 있고, 통합된 치료로서 정신역동치료 모델의 최신이론으로 단기역동정신치료의 대표적 치료 이론이다.

본 심포지엄은 첫째, 감정공포치료의 이론 및 개념화, 둘째, 감정공포치료의 방어와 감정 재구조화하기, 셋째, 감정공포치료의 자기와 타인 재구조화하기로서 전체 3주제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특히, 둘째와 셋째 주제를 통해 치료 사례와 실재를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치료자로서의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감정공포치료의 이론 및 개념화	하 정	전주대학교
2	감정공포치료의 방어와 감정 재구조화하기	이문희	용문상담심리 대학원대학교
3	감정공포치료의 자기와 타인 재구조화하기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성인기 질병과 건강심리적 개입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3:20-17:30
- 책임주관자: 김종남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이사, 서울여자대학교)
- 공동주관자: 현명호 (한국건강심리학회장, 중앙대학교)
- 공동주관자: 조성근 (한국건강심리학회 총무이사, 충남대학교)
- 토 론 자: 김교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 사 회 자: 김종남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이사, 서울여자대학교)

발달주기에 따라 쉽게 잘 걸리는 질병이 존재한다. 성인기에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인기를 위협하는 다양한 신체질환 중 만성통증과 불임(난임), 암이라는 세 가지 질병을 주제로 하여 각 장애에 대한 건강심리적 개입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만성통증관리에서의 최신 심리적 개입 동향에서는 만성통증과 건강만성통증에 대한 최신 건강심리적 개입 방법과 연구결과, 만성통증에 대한 효율적인 중재 등을 소개한다. 그 다음 불임대상자에 대한 건강심리적 접근에서는 불임의 현황과 문제점, 불임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할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에서는 암환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근거기반치료를 소개하고,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재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할 것이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만성통증관리에서의 최신 심리적 개입 동향	박수현	연세대학교
2	불임 대상자에 대한 건강심리적 접근	김미옥	남서울대학교
3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 :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유은승	국립암센터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내적보호 요인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방은령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한서대학교)
- 토 론 자: 이흥표 (대구사이버대학교)
- 토 론 자: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토 론 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 론 자: 조혜영 (공주대학교)
- 토 론 자: 오현숙 (한신대학교)
- 토 론 자: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 사 회 자: 주경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심포지엄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의 내적보호 요인을 아동, 대학생 등 다양한 인간발달적 단계와 직업상이라는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감정노동자의 자아탄력성 등이 각각의 상황적 맥락에서 지니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물들을 발표한 후, 각 연구의 구성, 결론, 함의 등에 대해서 토론자와 청중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임연정,진미경	숙명여자대학교
2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강명숙 ¹ ,방은령 ²	강원대학교 ¹ 한서대학교 ²
3	감정노동자의 감정부조화와 직무스트레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최지형,박은민	동신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미래의 소비: 경제행위에서 사회적행위로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성영신 (고려대학교)
- 공동주관자: 신은희 (Nielson)
- 공동주관자: 이도준 (연세대학교)
- 공동주관자: 김학진 (고려대학교)
- 토 론 자: 박은아 (대구대학교)
- 토 론 자: 장대익 (서울대학교)
- 토 론 자: 성용준 (고려대학교)
- 사 회 자: 성영신 (고려대학교)

20세기 초 생존을 위한 기능적 활동으로 시작된 구매와 소비행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다. 소비는 한 시대의 가치와 사회문화를 반영하며 개인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였고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에서도 나눔과 공유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착한소비'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행위로 그 의미가 바뀌고 있는 현대소비의 의미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	비디오 상영 : '착한소비'에 국경은 없다		
1	진화하는 소비자 : 이기적 소비에서 이타적 소비로	성영신	고려대학교
2	이타적 행동의 신경심리학적 해석	이도준	연세대학교
3	이타적 소비, 누가 하는가?	김학진	고려대학교
4	글로벌 서베이 : 착한소비의 국가간 비교	신은희	Nielson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아동 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5:30-17:30
- 책임주관자: 최영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중앙대학교)
- 공동주관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 공동주관자: 김정미 (한솔교육연구원)
- 공동주관자: 채수은 (강릉원주대학교)
- 토 론 자: 정윤경 (카톨릭대학교)
- 사 회 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육아에서 아버지는 주로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쳐왔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늘고,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아동발달에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 비하여 아직까지 아동 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쳐왔다. 본 심포지엄은 아동 발달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임상적,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향후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주제들을 모색하고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심포지엄에서는 우선적으로 임상적 접근을 활용한 두 편의 연구(발표1 과 발표2)를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가 미치는 독자적 영향과 함께 임상 중재적 장면에서 가족-중심적 접근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인종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차이를 조명해 봄으로써 사회, 문화적으로 아버지가 아동 발달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다양성과 그 역할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아버지가 아동 발달에서 가지는 역할과 영향, 또 이러한 역할 수행에 미치는 요인들, 임상 장면에서의 의미를 도출해 보고, 향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가족 구조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화 해 보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하나,설희정	성균관대학교
2	가족-중심적 접근에 근거한 영유아 발달 진단 및 중재 활용	김정미	한솔교육연구원
3	아버지의 육아 활동 참여 결정 요인의 인종 간 차이	채수은	강릉원주대학교

※ 본 심포지엄 참석 시, 발달심리사 자격증 수련인정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워크숍

레시피(Cole et al., 2008)로 배우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정선호 (경희대학교)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또는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검증은 매개모형에 조절변수가 결합된 형태로서 매개변수를 통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이 제 3의 변수인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Muller et al. (2005)의 방법론 논문 출판과 Hayes의 PROCESS(SPSS Macro, 2007) 개발 이후 다양한 행동과학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모형에 기반을 둔 국내외 논문들이 다수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맞춰 본 워크숍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통계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통해 실습해 봄으로써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분석기술을 습득해 보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레시피(Cole et al., 2008)로 배우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	정선호	경희대학교

본 워크숍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의 개념적/방법론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통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습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연구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지식(working knowledge)의 체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워크숍은 Cole, Walter, & Bruch (2008,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의 논문을 레시피로 선정하고 저자들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험적으로 학습해 본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른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설정과 검증 과정을 배우고 분석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준비물: SPSS 설치된 노트북 (1시간 이내 실습), 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

※ 노트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내 전기코드 이용 불가)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워크숍
심리학기반 코칭

- 진행일자: 2015년 8월 21일(금)
- 진행시간: 13:20-17:30
- 책임주관자: 이희경 (한국코칭심리학회 부회장, 피비솔)
- 공동주관자: 전종국 (한국코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대구사이버대학교)

코칭심리의 실천에서 심리학 기반 코칭의 실재를 체험하고 공유한다. 워크숍 1에서는 코칭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의 이해, 코칭심리학의 핵심 이론 및 사례적용, 사례개념화 연습 등을 다룬다. 워크숍 2에서는 긍정심리학과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관점에 기반하여 피코자와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기본 철학과 인간관을 탐색하고 코칭목표 설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시연하고 공유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사례로 경험하는 코칭심리학	이희경	피비솔
2	아들러 개인심리학 기반 긍정심리코칭	전종국	대구사이버대학교

2015년 8월 22일(토)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대리외상, 소리 없는 충격으로부터의 치유와 성장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최윤경 (재난심리위원회 위원장, 계명대학교)
- 공동주관자: 유성은 (충북대학교)
- 공동주관자: 하정희 (한양사이버대학교)
- 공동주관자: 이종선 (강원대학교)
- 토 론 자: 최윤경 (계명대학교)
- 사 회 자: 유성은 (충북대학교)

본 심포지엄에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단계에서 치료자, 상담원, 목격자 등이 경험할 수 있는 대리외상에 대한 이해와 치유, 그리고 대리외상 이후의 성장을 개관한다.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외상을 치유하는 전문가들이 소진과 대리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대리외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들을 개관하고, 마지막 심포지엄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대리외상 후 성장에 대해 소개한다. 토론에서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간접외상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예방, 치유, 그리고 성장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트라우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기 돌봄의 중요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충격의 한가운데서: 소진과 대리외상	박은영	적십자사
2	대리외상의 이해	최현정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 마음
3	외상후 성장과 대리외상후 성장	임선영	선문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융합심포지엄

한국형 PTSD 치료 모형 연구

- 심리학·뇌융합연구와 정책연계 -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3:00-15:00
- 책임주관자: 임재호 (중앙공무원교육원)
- 공동주관자: 신주한 (국민안전처)
- 공동주관자: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 사 회 자: 서경현 (삼육대학교)

우리나라 실정과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PTSD 치료 방법 모색과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심리학·뇌융합연구·정책의 통합적 연구심포지엄이다.

심리학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뇌융합연구(정신과), 중앙정부의 PTSD 정책의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재난심리,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국형 치료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한국형 PTSD 치료 시스템 모형연구	임재호	중앙공무원교육원
2	국민안전처 PTSD 치료지원과 정책방향연구	신주한	국민안전처
3	증거기반 PTSD 치료 연구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fMRI기법을 활용한 심리학 연구의 새동향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김채연 (고려대학교)
- 공동주관자: 최종문 (고려대학교)
- 공동주관자: 한석원 (충북대학교)
- 공동주관자: 탁경진 (연세대학교)
- 사 회 자: 김채연 (고려대학교)

20년 전 인간의 심리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기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심리학의 여러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초기에 제한된 분야에만 적용되었던 fMRI기법은 최근 들어 감각정보가 뇌에 부호화되는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사회적 인지과정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심리학의 핵심 연구 도구로 자리잡았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심리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 중 정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인지 분야에 뇌영상학 기법을 적용하여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인지기능 연구를 위한 fMRI : 인지적 유연성의 신경학적 기제	한석원	충북대학교
2	정서기능 연구를 위한 fMRI : 예측 어려운 위협 상황에서의 정보처리 양상과 신경기제	최종문	고려대학교
3	사회인지 연구를 위한 fMRI : 행위 주체에 따른 행위 해석의 신경 상관물	탁경진	연세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심포지엄

질적연구의 마당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3:00-17:00
- 책임주관자: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 공동주관자: 한규석 (전남대학교)
- 토 론 자: 이순목 (성균관대학교)
- 사 회 자: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21세기 이후에 질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양적방법은 가설의 검증에 적합하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론의 생성에서는 질적연구에 비해서 취약하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론의 서구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조명하는 서구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본 심포지움은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질적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논의하여,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심리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이야기하기로 보는 원풍경 : 이야기의 종류와 타입	오선아	교아이 가쿠엔 마에바시 국제대학
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탐색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정체성	김종백,김태희	홍익대학교
3	과학자 팀의 상호작용 분석 사례	정혜선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4	일상우울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	김종남 ¹ ,도승이 ² 이순목 ² ,채정민 ³ ,최승원 ⁴	서울여자대학교 ¹ 성균관대학교 ² 서울사이버대학교 ³ 덕성여자대학교 ⁴
5	중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도승이,진하늘 ,최린건,김록현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분과워크숍
질적 자료 수집법: 관찰과 인터뷰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영역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리학 영역에서의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에서 알기 어려운 현상을 탐색하고 밝혀낼 수 있으나, 연구 및 분석 과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질적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그 접근방식과 방식이 다르다. 본 워크숍에서는 질적 자료 중 가장 대표적인 관찰자료와 인터뷰 자료 수집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워크숍에서는 관찰과 인터뷰의 장점 및 단점, 효과적인 관찰자료와 인터뷰 자료 수집법, 관찰일지와 연구일지, 면담일지 작성법, 성공적인 면담을 하기 위한 조건 등을 설명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질적 자료 수집법: 관찰과 인터뷰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특별프로그램
영어 논문작성에서 영문학술논문 출간까지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0:00-12:00
- 책임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본 특별프로그램은 심리학 분야 연구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작성, 출간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첫째, 한국 연구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 흔히 경험하는 어려움과 오류들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영문학술논문을 투고, 심사, 게재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셋째, 영문학술논문의 구성요소별(예: 초록,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등) 작성 요령을 예제를 통해 학습한다.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영어 논문작성에서 영문학술논문 출간까지	이동귀	연세대학교

프로그램 상세 안내 : 특별프로그램
고교생심리학교실

- 진행일자: 2015년 8월 22일(토)
- 진행시간: 14:00-17:15
- 책임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NO	제목	발표자	소속
1	몸과 마음에서 문화까지, 소비자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김지호	경북대학교
2	심리학, 과학으로 아픔과 사람을 만나다.	양재원	가톨릭대학교
3	마음의 알고리즘: 실험심리학의 이해	이도준	연세대학교

※ 본 특별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교생심리학교실 접수기간에 참가접수를 완료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